

# 논술고사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 Part I

#### 문항 및 제시문

####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1>

You may be familiar with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A man from the ancient city of Samaria sees another man lying on the road. Many people ignore the man and pass him by, but the Samaritan stops to help him. He followed the Golden Rule: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But the Golden Rule is challenged on a daily basis. People in need of help should get the support they require. Instead, others avert their eyes, turn their heads and pass by quickly. This is known as the Bystander Effect. Diffusion of responsibility is one reason for this effect. In their years of research, social psychologists Darley and Latané discovered a paradox: the greater the number of eyewitnesses became, the less each witness felt responsible to help. The outcome is that if everyone assumes someone else will help, then no one does. After interviewing study participants, Darley and Latané discovered that although their bystander subjects were by no means unsympathetic, they did not feel personally responsible to do anything.

Some countries have designed a "Good Samaritan" doctrine to impose a legal duty on these bystanders to render or summon help for strangers in peril. In layman's terms, the "Good Samaritan" doctrine makes it mandatory to at least attempt to call for help for an individual in peril, a task most people would do unless they were under the direst\* of situations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doing so.

\* direst: 대단히 심각한

- Sword and Zimbardo, "The Bystander Effect"에서 재구성

##### <제시문 2>

(가)

세계 각국은 난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의 난민이 겪는 생활고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방관하였다. 4백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지에서 살아남고자 여전히 분투 중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는 3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도 이 중 극소수만 2013년에 재정착했을 뿐이다. 또한 2015년 1분기 동안 군사정권의 탄압을 피해 약 25,000명의 미얀마 로힝야족들이 인접국가로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들은 이들을 돕지 않았다.

- 엠네스티 뉴스에서 재구성

(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하자는 기후변화협약(1992)을 체결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가 불충분했으므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교토의정서(1995)를 채택했다. 선진국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 및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과 개발도상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이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었다. 이 의정서는 가입 당사국들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여건에 맞게 미국(7%), 일본(6%), 유럽연합(8%) 등에게 차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하였다.

- 에너지관리공단, 「알기 쉬운 기후변화협약」에서 재구성

### <제시문 3>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지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으나.

- 송수권, 「까치밥」, 『EBS 수능특강 문학』

### [문제 1]

<제시문 1>의 요지와 <제시문 3>의 주제의식을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 [문제 2]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2>의 (가)와 (나)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및 제시문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이고 그의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중 한 아들에게는 3경을 주고, 두 아들에게는 2경씩을 주며, 세 아들에게는 1경씩을 주고, 나머지 네 아들은 받을 땅이 없어 울면서 땀흘리며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부모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낼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 생령(生靈)으로 하여금 먹고살게 하였고, 또한 백성을 위하여 임금과 목자(牧者)를 두어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제(均制)케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임금과 목자 된 자가 팔짱만 끼고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백성들이 서로 싸워 재산을 빼앗고 합치는 일을 보고 이를 누가 막겠는가? 힘센 자는 더욱 많이 얻게 하고 약한 자는 떠밀림을 당하여 땅에 쓰러져 죽게 한다면, 그 임금과 목자 된 자들은 군목(君牧)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 정약용, 「전론 1」, 『여유당전서』

<제시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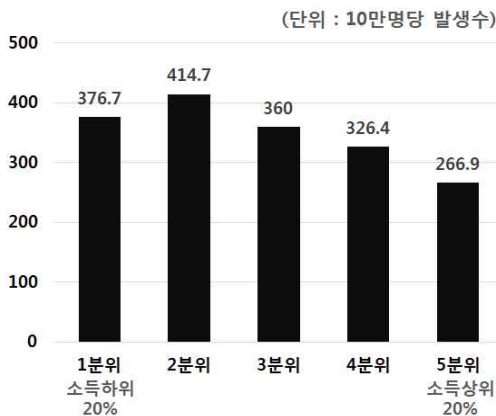
노직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어떤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러한 소유는 정당하다. 그리고 교환이나 증여, 상속 과정에서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 역시 정당하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직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국가의 모든 재분배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취득과 양도 과정에 잘못이 없는 한, 빈부 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러한 상태는 정의롭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 행위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훌륭한 방식이라고 권장한다. 노직의 ‘소유권적 정의론’에 따르면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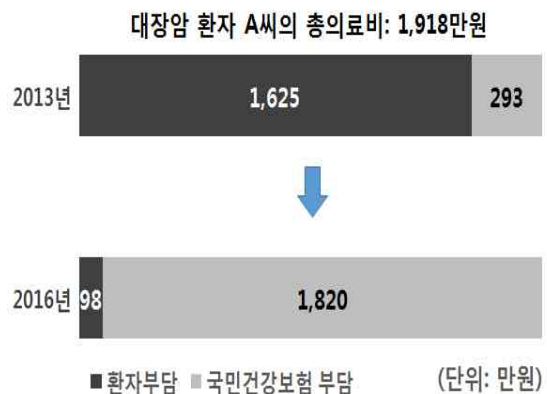
<자료>

[그림 1] 소득과 암 발생의 관계(남자)



출처: 보건복지부,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그림 2] 4대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따른 가계 부담 변화 예상(2013년 기준)



출처: 매일경제

[표 1]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및 가계직접부담 비율(2012년 기준) (단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일본	한국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율	47.6	84.0	77.4	85.8	82.1	54.5	72.3
가계직접부담 비율	12.0	9.0	7.5	12.4	14.0	35.0	19.0
기타(민영보험 등)	40.4	7.0	15.1	1.8	3.9	10.5	8.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공재원 비율: 전체 의료비 중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율

\*가계직접부담 비율: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하는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3』

[표 2] 2015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

구분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성 난치병
보험료 대 급여비	3.4배	7.5배	7.3배	3.9배
전체	3.4배	7.5배	7.3배	3.9배
1분위(소득 하위 20%)	12.9배	28.7배	28.8배	16.8배
5분위(소득 상위 20%)	1.4배	3.2배	3.1배	1.6배

\*보험료: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함

\*급여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이며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함

\*보험료 대 급여비: 급여비를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는 정도를 의미함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문제 3]**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아래의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그림 1], [그림 2], [표 1]을 활용하여 추론하고, [표 2]를 활용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을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확대 정책>

사망 원인 순위 1~3위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희귀성 난치병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2013년부터 확대하고자 한다.